

## 판매경쟁은 품질경쟁으로

### 풍년사료를 찾아서

#### 취재부



〈풍년사료 공장 전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31-9.  
거대한 원료저장탱크가 제일제당주식회사의  
규모를 대변해 준다. **부산물 이용의 이  
점을 살려** 김효규 공장장과 최명우 사료과장,  
허태수 경남지부 총무와 같이 공장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풍년사료는 제일  
제당의 良質의 부산물을 이용하고, 기존  
시설 및 유통시설을 활용하므로서 시설투자와  
엄청난 부산물 수송비를 절약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利點을 살려 같은 三星계열회  
사로서 용인에 위치한 중앙개발(양돈단지)에  
좋은 사료를 자급할 목적으로 제일제당주식회사  
에 사료과를 신설하고 74년 2월에 제품생  
산을 시작했으며 곧이어 부산지역에 풍년사료  
라는 제품명으로 市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돈의 사양표준이 단시일내에 외국수준을  
능가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 당시 이 병철 회장

님의 특별지시였기 때문에 우수한 사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는 자체제분 공장에서 나오는 우량한 부산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시판을 시작했고 75년에 비해 76년에는 예상외로 생산량이 2배로 증가했을 때는 스스로 놀랐다는 김효규 공장장의 설명이다.

#### ▣ 신제품은 반드시 사양실험

평소에 신제품은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사양시험을 의뢰하므로서 꾸준한 품질향상에 주력하였으며 특별히 판매촉진활동을 벌이지도 않았고 또한 거래조건도 다른공장에 비해 양축가에서 불리한 편이었으나 계속적으로 단골고객이 늘어왔다는 것이 최명우 과장의 자랑이다.

#### ▣ 사료요구율 향상에 진력

현재 1일 생산량이 150톤으로서 양돈사료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계용사료는 작년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양계사료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양돈생산비율을 40%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으며 또한 사료요구율을 2.8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양실험중이라고한다.

“74년도 사료파동때에도 사료요구율 3.2를 유지할 수 있었음은 사료의 품질을 유지, 향상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충분한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뒤따랐기 때문이며 이때에 풍년사료가 양축가들의 신임을 받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라며

김효규 공장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윤 폭을 줄이면서라도 사료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축산발전을 위한 의무로서 설명한다

### ▣ 양계용 사료생산 늘릴 계획

현재 풍년사료는 사료파라는 과단위에서 작업인원까지 포함해 총 11명의 인원으로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려 가지 난점이 있으나 많은 조사와 검토끝에 자체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앞으로 양돈, 낙농용사료보다 양계부문의 사료생산을 단계적으로 신장시킬 예정인데 양계사료부문은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므로 판매촉진활동을 위한 인원보강보다는 양계가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사료를 생산하는 품질경쟁방식을 택하겠다며 현재 전국에 11개소의 대리점이 있는데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통마진이 추가되므로서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판매조직을 변경하는 문제점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작업 현장에는 작업원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자동적재시설에 의해 사료가 차량에 적재되고 있었다.

### 품질경쟁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현재 경남지역에는 많은 사료공장이 있어 과열된 판매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료공장측의 입장에서는 외상등 거래 조건이 불리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양축

가들에게도 결코 유리한 것만이 아니므로 “사료업계는 부당한 과잉경쟁을 삼가하고 품질경쟁을 해야할 것이며 양축가들도 전망이 좋을 때는 양축을 시작하거나 규모를 무작정 확대하고 전망이 나쁠 때는 충단하는 등 투기적인 자세를 지양하므로서 견전한 축산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김효규공장장은 강조한다.



〈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단골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자랑하는 최명욱 사료과장〉 (좌)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원료부족과 원가압박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사료업계는 최대한의 인내와 지혜로서 양축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은 사료가격을 현실화 혹은 자유화시키면서 사료품질향상을 겨냥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인다.

